

STYLETECH

2025 스타일테크 리포트 STYLETECH REPORT

Fashion, Beauty, Living
with Design+Technology

2025 스타일테크 리포트 STYLETECH REPORT

Fashion, Beauty, Living
with Design+Technology

CONTENTS

스타일테크 조망

스타일테크의 현재와 미래

- | | |
|------------------------------------|---|
| 1. 스타일테크의 세부 분류 | 3 |
| 2. 국내외 스타일테크 시장 현황 | 5 |
| 3. 생성형 AI가 재편하는 스타일 산업 밸류체인과 투자 지형 | 6 |

스타일테크 AC 프로그램 소개

스타일테크 액셀러레이팅(AC) 프로그램은?

- | | |
|--------------------------------------|----|
| 1. 왜 스타일테크 액셀러레이팅(AC)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 8 |
| 2. 스타일테크 액셀러레이팅(AC) 프로그램, 어떤 역할을 하는가 | 8 |
| 3. 스타일테크 AC 프로그램의 성과와 참여 유망기업 동향 | 10 |

스타일테크 1~7기 주요 유망기업 소개

- | | | |
|----|--------------|----|
| 1기 | (주)인에디트 | 13 |
| 2기 | 주식회사 콜라보그라운드 | 15 |
| 3기 | 씨브이쓰리 주식회사 | 17 |
| 4기 | (주)스튜디오랩 | 19 |
| 5기 | 주식회사 페이퍼팝 | 21 |
| 6기 | (주)릴리커버 | 23 |
| 7기 | 주식회사 마크비전코리아 | 25 |

맺음말

- | | |
|-------------------------------------|----|
| 7년의 여정, 스타일테크 산업의 성장을 주도한
혁신의 요람 | 27 |
|-------------------------------------|----|

Appendix

- | | |
|--------------------|----|
| 스타일테크 1~7기 선정 유망기업 | 29 |
|--------------------|----|

스타일테크 액셀러레이팅(AC) 프로그램 Timeline

스타일테크의 현재와 미래

최근 스타일테크(Styletech)는 패션·뷰티·리빙 등 라이프스타일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과 기술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됨에 따라, 스타트업 및 투자 업계에서 주요 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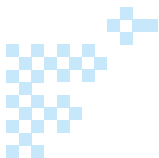
스타일테크는 패션, 뷰티, 리빙 등 전통적인 라이프스타일 산업에 신기술이 융합돼 새로운 산업으로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라이프스타일 산업과 IT 기술이 융합하여 제조 가치 사슬 전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의 수요에 맞춘 제품과 서비스·경험 등을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등이 스타일테크를 지원하는 테크 놀로지다.

스타일테크는 단순한 기술의 적용을 넘어, 소비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생산과 서비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대량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상품화하는 정보 기반 산업으로의 진화가 핵심이다.

예컨대 AI가 트렌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십, 수백 개의 디자인 시안을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수요 예측과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산량과 공급망을 최적화한다. 또 마케팅과 판매, CS 영역에서는 이미지·카피·영상 생성, 대화형 커머스, AI 상담원(AICC) 등 고객 접점 전반이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하고 있다.

1. 스타일테크의 세부 분류

패션테크



패션테크는 의류·잡화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스타일테크 산업 중 가장 활발하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패션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AI, 빅데이터, 3D 프린팅, 3D 스캐닝, AR/VR 등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는 아래와 같다.

기획/디자인

AI가 수만 개의 이미지를 분석해 트렌드를 예측하고 디자인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구글은 ‘프로젝트 뮤제(Project Muze)’라는 이름으로 사용자의 성향과 기분을 분석해 AI가 의상을 디자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AI 기반 개인화 추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AI와의 대화를 통해 고객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반영한 의류를 추천할 수 있다. 고객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자신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AI는 고객 개인의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의 패션 플랫폼 Stitch Fix는 사용자가 취향, 스타일, 신체 사이즈 등을 입력하면 자체 알고리즘이 이를 분석해 5벌의 옷을 골라 배송한다. AI가 1차로 추천한 아이템을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최종 검증, 구매율을 높이는 ‘AI+휴먼’ 협업 모델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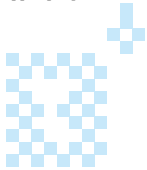
실감형 유통

AR/VR 기술을 활용하면 고객은 옷을 입어 보지 않고도 가상 피팅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의류나 액세서리가 나와 어울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반품률을 낮추고 고객만족을 높인다. 아마존은 이용자가 AR 기술을 통해 신발이나 의류를 가상으로 착용해볼 수 있는 서비스 '버추얼 트라이-온'을 제공한다.

스마트 제조

3D 바디 스캐닝으로 신체를 정밀 계측하여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제작하기도 한다. 3D 의상 시뮬레이션은 샘플 제작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Acustom Apparel은 3D 바디 스캐너를 사용하여 20만 개의 데이터 점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 고객의 신체에 맞는 개인화된 맞춤 양복을 제작한다.

뷰티테크



뷰티테크는 화장품 및 뷰티 서비스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분야이다. 특히 개인 맞춤형 솔루션이 전체 뷰티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빅데이터와 AI 기반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AI 피부 진단

IoT 기반의 피부 측정기가 피부 수분, 유분, 색소 침착 등을 분석하면, AI가 최적의 제품을 추천한다. 롤루랩의 루미니 디바이스는 얼굴을 스캔해 주요 피부 지표를 분석 후,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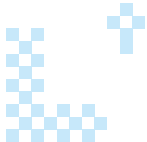
맞춤형 제조

유전자 분석이나 피부 진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한다. 아모레퍼시픽의 아이오페 테일러드 솔루션은 3D 프린팅과 IoT 기술을 적용해 매장에서 개인 얼굴형과 피부에 맞는 마스크를 만들어준다.

뷰티 IoT 디바이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주변 환경(온도, 습도 등)에 맞춰 자동으로 동작하는 스마트 미용기기 개발도 활발하다. 하이미러의 경우 최첨단 스마트 거울이 "피부상태를 분석해준다."

리빙테크



리빙테크는 가구, 인테리어, 생활용품 등 리빙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분야이다. AR/VR을 활용한 가상 인테리어 서비스, IoT 기반 스마트 홈 제품,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생활용품 등이 주요 영역이다.

홈 스타일링

VR/AR 기술을 활용해 가구를 가상 공간에 배치해보는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IKEA와 같은 주요 가구 판매점은 공간 측정 값을 입력하고 가상으로 가구를 배치해볼 수 있는 자체 플래닝 도구를 제공하고, 인테리어 시공 전 미리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다.

IoT 라이프

IoT 기반 소형 가전 제품은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유용하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여 자동으로 향기를 분사하는 스마트 디퓨저나, 수면 및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스마트 가전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2. 국내외 스타일테크 시장 현황

스타일테크 시장은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되는 분야다. 이런 기대감의 이면에는 효율성 제고와 개인화 경험 제공이라는 두 가지 핵심 동인이 작용한다. 공급망 측면에서 AI를 활용한 수요 예측과 재고 최적화가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AI와 AR/VR 등의 기술이 고객의 경험을 혁신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글로벌 패션테크 시장은 AI, 빅데이터, IoT 기술의 도입이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조사 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글로벌 패션테크 시장 규모는 약 2,396억 5,000만 달러(약 320조 원)로 추산되며, 향후 연평균 성장률(CAGR) 6.3%를 기록, 2030년에는 3,453억 9,000만 달러(약 4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뷰티테크 분야는 패션보다 더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같은 조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뷰티테크 시장은 2024년 661억 6,000만 달러 규모에서 2030년 1,729억 9,000만 달러로, 연평균 17.9%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뷰티 디바이스만 2030년까지 약 2,97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P&S Intelligence)도 존재한다.

뷰티테크의 경우 한국 시장 성장세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뷰티테크 시장은 약 20억 4,700만 달러인데, 연평균 22.3%로 성장해 2030년에는 66억 6,800만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Grand View Research)된다.

현재 패션 및 뷰티테크 시장은 복미가 주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패션테크 시장의 33%, 뷰티테크 시장의 38% 이상을 이 지역이 점유하고 있다. 아마존, 스티치픽스, 웨이퍼 등이 혁신을 주도하며, 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의 상용화 수준이 가장 높다.

반면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지역이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패션테크 시장은 연평균 8.5%, 뷰티테크 시장은 2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모바일 커머스 침투율이 높고, K-뷰티 및 K-패션의 글로벌 확산이 기술 수용성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뷰티 디바이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등장이 두드러진다.

3. 생성형 AI가 재편하는 스타일 산업 밸류체인과 투자 지형

김주영 / 시그나이트 책임심사역

전통적으로 스타일 산업은 디자이너의 감각, 현장 경험, 그리고 집약된 노동력에 기반해 운영되어 왔다. 기술은 주로 효율을 보조하는 수단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급격한 발전은 이러한 산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GenAI 도입 및 대체 속도

- 느림
- 중간
- 빠름
- 매우 빠름

Value Chain	Traditional	Digital Transformation	GenAI
디자인, 기획	· 수작업 도안/스케치 · 디자이너 감각 중심 · 경험 기반 트렌드 판단	· 3D 디자인툴 사용 · 트렌드 데이터 기반 기획 · 디지털 머천다이즈	· 이미지/스타일 생성 AI · 고객 맞춤 기획 자동화 · 트렌드 예측 기반 추천
생산	· OEM/ODM 수작업 위주 · 반복적 샘플링 · 경험 기반 수요예측 발주	· ERP 기반 납기관리 · QR/바코드 추적 · Tech Pack 디지털화	·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 · 생산량 최적화 · 공급망 시뮬레이션 적용
마케팅	· 인쇄광고/화보 중심 · 오프라인 PR/이벤트 · 감성 기반 메시지	· SNS, CRM 마케팅 · 타겟 세그먼트 광고 · 퍼포먼스 마케팅 효율증대	· 카피/이미지/영상 등 마케팅 소재 AI제작 · 개인화 광고 소재 생성 가능 · 퍼포먼스-소재생성 자동화
판매	· 오프라인 리테일 중심 · 정가제, 시즌 세일 · 매장 중심 판매 데이터	· 이커머스 중심 전환 · 라이브/음니채널 확장 · 마켓플레이스 입점 확대 · 추천 시스템 기반 컨버전	· 챗봇기반의 Conversational Commerce로의 UX 전환 · 검색포털(광고)+커머스 기능이 Foundation 앱 흡수
CS	· 콜센터, 수동 응대 · VOC 수기 정리 · 정형화된 답변 제공	· 챗봇/CRM 도입 · 리뷰 분석 자동화 · 고객 여정 시각화	· AI가 고객 응대부터 문제 해결까지 담당

특히 주목할 점은 '디자인·기획, 생산, 마케팅, 판매, 고객응대(CS)'에 이르는 스타일테크 전 밸류 체인에서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개별 공정의 자동화와 데이터화에 집중했다면, 생성형 AI는 각 단계의 의사결정과 실행을 직접 대체 하거나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투자 지형에도 구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2017년 전후로 딥러닝 기술이 본격 확산되던 시기에는, 자체 알고리즘과 모델 성능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운 기술 중심 AI 스타트업들이 대거 등장했다. 그러나 현재는 GPT, Gemini, Claude등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이 산업 전반의 공통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스타트업 경쟁의 중심이 모델 개발 자체에서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이동하고 있다. 즉, "어떤 모델을 쓰느냐"보다 "어떤 산업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가 핵심 경쟁 요소가 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기회와 동시에 한계를 내포한다.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이 빠르게 상향 평준화 되면서, 애플리케이션 스타트업의 기술적 진입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정 기능이나

UX만으로는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더 나아가,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등 AI 기반 개발 방식의 확산으로 개발 비용과 인력 의존도 또한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단순히 'AI를 활용한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는 투자 매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스타일테크 스타트업의 성공 여부는 기술 자체보다 수익모델의 명확성, 실제 현장에서의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영업 및 확장 역량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는 스타일테크 산업의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은 분명하다. 특히 인적 감각과 노동 집약도가 높았던 영역일수록 AI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생산성 개선 폭이 크다는 점에서, 투자자 관점에서의 매력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기준,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금의 약 71%가 AI 관련 기업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 전략 또한 '기술 자체'가 아닌 '산업 문제 해결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케팅과 CS 영역이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 고도화로 인해, 고감도의 패션 비주얼과 룩북을 AI 기반으로 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CS 영역 역시 구조적 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이다. 현재 국내 기준 콜센터 전화 1건당 비용은 약 2,000원 수준으로,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상담 인력의 전문성 트레이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까지 고려하면, 전통적인 콜센터 모델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AI Contact Center(AICC)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한 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선 블루메이아이(구 루나소프트)와 같은 기업이 시장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자 하는 벤처 투자자의 선택을 받았다.

종합하면, 스타일테크 산업은 생성형 AI를 기점으로 '사람의 감각과 노동력 중심 산업'에서 'AI 기반 의사결정과 실행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향후에는 단순히 AI 기술을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리테일 현장에서 검증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생성형 AI 기반의 스타일테크는 더 이상 보조적 기술 영역이 아닌, 리테일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주영 / 시그나이트 책임심사역

국내 1호 패션 디자이너 출신 VC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디자인하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첫 커리어를 패션 디자이너로 시작해 신세계인터내셔널에서 디자인과 사내벤처를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개인의 감에 의존하는 데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KAIST 정보경영 석사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연구하며 기술 관점에서 패션 산업을 재해석해 왔습니다.

현재는 신세계그룹 CVC 시그나이트에서 소비자 및 리테일테크 분야 투자를 담당하며, 생성형 AI가 디자인·마케팅·고객 경험 전반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현장과 투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생성형 AI가 재편하는 리테일 밸류체인과 투자 지형' 파트를 맡아 집필했습니다.

스타일테크 액셀러레이팅(AC) 프로그램은?

1. 왜 스타일테크 액셀러레이팅(AC)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패션과 뷰티와 같은 라이프스타일 산업은 오랫동안 감각과 트렌드, 경험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산업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3D와 혼합현실(XR), IoT 같은 기술이 결합하면서 스타일 산업은 더 이상 감각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술과 시스템의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에만 천착하는 경향이 있다. 혁신적인 기술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스타일 산업은 오직 기술만으로는 혁신을 이루기 어렵다. 소비자 경험과 감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그 기술이 사용의 영역으로 들어설 때는 경험을 만들어내고, 그 경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디자인이다. 현실의 문제 상황에 대처하고 사용자를 이해하여 매끄러운 경험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주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스타일테크 액셀러레이팅(AC) 프로그램,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지원하는 스타일테크 액셀러레이팅(AC) 프로그램은 “역량 있는 스타일테크 유망기업이 기존 산업과 조화롭게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 패션과 뷰티, 리빙 스타일 분야를 중심으로 AI나 센서, IoT, 블록체인, XR, 로봇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사업을 적극 발굴해 육성한다.

국내에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시도하는 스타트업은 대부분 초기에 수익 창출이 어렵거나, 혹은 더 큰 기업으로 성장(스케일업) 하는데 한계를 겪는다. 스타일테크 프로그램은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이 대중견 기업과 만나 판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해 왔다. 예를 들어, 2021년 창업한 스튜디오랩은 AI와 로봇틱스 기반의 커머스 콘텐츠 생산 솔루션을 만든다. 스타일테크 AC 프로그램에 선정된 후, 이랜드와 협업하면서 패션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을 자동화하는 주요한 실증 레퍼런스를 만들었다. 이 회사는 2024년부터 CES에서 3년 연속 혁신상,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글로벌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중견 기업 역시 오픈이노베이션에 참여하면서 조직의 혁신과 경쟁력을 유지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유망기업과의 협력으로 리스크를 분담하고 시장 진입 속도를 조절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는 동력을 얻어, 결국 시장 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윈윈 효과도 내고 있다. 스타일테크 AC 프로그램을 통해 오픈이노베이션의 다양한 성공 사례가 등장하면서 대기업이 외부와의 협력에 더 개방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스타일테크 AC
프로그램 소개



스타일테크 AC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는 신규 기업을 선발,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반성장형’과 기존 스타일테크 프로그램 참여 기업 중 더욱 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유망기업을 선정해 스케일업을 유도하는 ‘자율성장형’으로 나뉜다.

이는 ‘성장의 흐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초기 스타트업을 선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이후에도 지속 지원을 이어가면서 그중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기업에는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오픈이노베이션 전문 엑셀러레이터와 UI/UX 디자인 전문 기업이 협업해 움직인다. ‘유망기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전반과 실무역량을 결합하는 과정’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데, 투자유치 이론 교육, 브랜딩 전략 교육, 선배 기업 멘토링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된다. 협업하는 대기업에는 아모레퍼시픽, 이랜드월드, 시그나이트, CJ E&M, 효성TNC, 현대홈쇼핑 등이 있다. 이들은 혁신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유망기업과 함께 신사업 비즈니스 발굴에 나선다. 신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찾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할 사업 모델 개발 등에 유망기업과 대중견기업이 협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최대 2,000만 원의 프로토타입(시제품) 제작비를 제공하고, 전문 디자이너 채용과 공유오피스를 지원한다. 전문 디자이너 지원의 경우 기업 수요에 따라 시각, 제품, UXUI, 서비스 등 분야에 해당하며, 기업 당 1명씩 최대 7개월 이내의 기간에 월 급여의 70~50%를 차등지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IR 고도화 프로그램 및 국내 데모데이를 통한 투자유치 기회가 주어지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비즈니스 확장과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2025년에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 비바테크(VIVA Tech)나 독일 가전전시회(IFA) 등에 참가 지원을 했으며, 미국 스탠퍼드 대학 소비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일본 진출을 연계했다.

또한, 스타일테크 참여가 종료된 유망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별 성장 계획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과 수요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디자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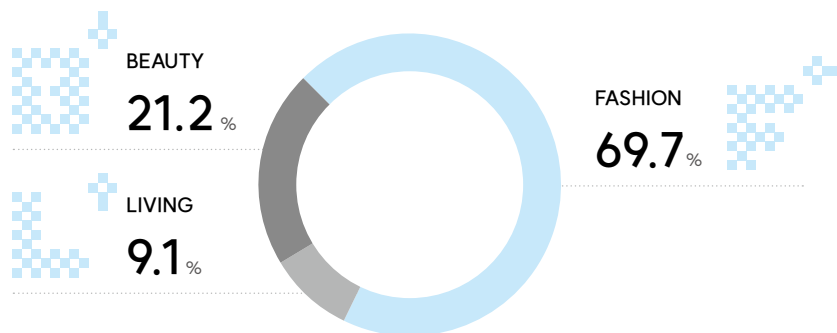
3. 스타일테크 AC 프로그램의 성과와 참여 유망기업 동향

2019년에 시작한 스타일테크 AC 프로그램에는 7년 간 총 834개의 기업이 지원했고, 이중 132개사가 선발됐다. 최대 1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이들 유망기업 중 57개사가 지금까지 총 2,018억 원 이상의 투자를 누적 유치했다. 58명의 디자이너 채용 지원, 65개 사에 공간 지원, 80개 사에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이 있었으며, 21개사의 대중견기업이 오픈이노베이션에 참여했다.

스타일테크
AC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 수치

신청 현황	신청기업 수	선정기업 수	최고 경쟁률	평균 경쟁률
	834 개사	132 개사	10:1	6:1
성장 지원	디자이너 채용지원	공간지원	프로토타입 제작지원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대중견기업 수
	58 명	65 개사	80 개사	21 개사
성장 지원	투자유치 기업 수 '25.11. 기준(비공개 제외)	누적 투자유치액 '25.11. 기준(비공개 제외)	총 고용인원 '25.11. 기준	총 매출액 '24 기준
	57 개사	2,018 억 원 이상	1,360 여 명	1,993 억 원

7기에 이르기까지 132개의 유망 기업을 선발, 지원해오며 스타일테크 AC 프로그램은 패션·뷰티·리빙 산업 전반에 기술을 융합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이 기간 동안 선발된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단순히 “스타일 산업에 IT를 더한 유망기업”의 집합이라기보다는, 스타일 산업이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실험의 연속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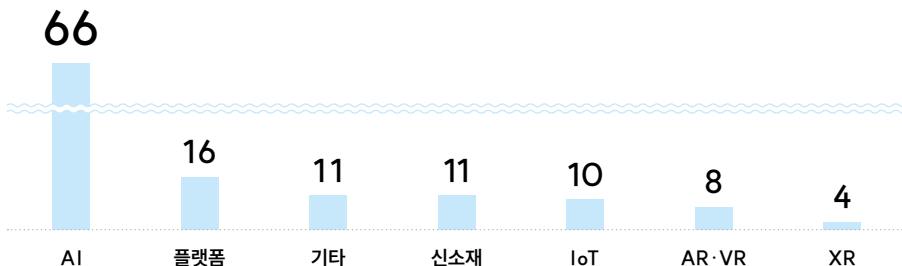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일관되게 ‘패션’ 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전체 선발 기업의 약 70%가 패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점은, 스타일테크라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패션 테크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패션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패션 산업은 기획, 생산, 유통, 재고, 반품,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이해관계와 운영 변수를 동시에 안고 있는 산업이다. 이러한 복잡성은 기술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선발 기업 다수가 ‘브랜드’라기보다 ‘솔루션’ 혹은 ‘플랫폼’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1기와 2기 초기 기업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분명하다. 셀러허브, 에이비제트, 인에디트와 같은 기업들은 모두 패션 산업 내부의 거래 구조와 운영 비효율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시기의 스타일테크는 새로운 디자인이나 감각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일보다는, 기존 산업 구조를 디지털화하고 연결하는 작업에 가까웠다. 스타일테크는 출발부터 ‘감성 산업’이 아니라 ‘운영 산업’의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스타일테크 유망기업의
주요 기술 키워드

기준 : 기업 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흐름은 점차 변화를 맞는다. 3기와 4기를 거치며 콘텐츠와 데이터의 비중이 커지고, AR·VR, AI와 같은 기술 키워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패션과 뷰티 산업에서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어떻게 더 많이 팔 것인가”보다 “어떻게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AI 기반 패션 상세페이지 자동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튜디오랩과 같은 기업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인 사례다. 이 단계에서 스타일테크는 더 이상 단순한 유통 도구가 아니라, 콘텐츠 생산과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자동화하고 고도화하는 기술로 진화한다.

뷰티 분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찰된다. 전체 비중은 패션보다 작지만, 뷰티 기업들은 비교적 일관되게 데이터와 AI를 중심에 둔다. 피부 진단, 개인화 추천, 매장 운영 데이터 분석 등은 뷰티

산업 특유의 '체험 중심 소비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콜라보그래운드나 릴리커버와 같은 기업들은 뷰티를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닌, 데이터 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를 보여 준다. 이는 향후 뷰티 산업이 브랜드 경쟁을 넘어, 누가 더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가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기 이후로 들어서면 스타일테크 프로그램의 스펙트럼은 더욱 확장된다. 특히 6기와 7기에서는 리빙 분야 기업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IoT, 신소재, 하드웨어와 같은 키워드가 등장한다. 리빙 분야는 패션이나 뷰티에 비해 초기 진입 장벽이 높고, 기술 구현 난이도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이 스타일테크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은, 스타일테크의 정의가 점차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포괄하는 기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페이퍼팝의 종이 가구, 누지의 IoT 기반 제어와 같은 사례는 디자인과 기술, 물성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스타일테크를 상징한다.

기술 측면에서 보면, 1~7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연 AI의 부상이다. 초기에는 플랫폼과 데이터가 핵심 키워드였다면, 중후반 기수로 갈수록 AI는 선택이 아닌 기본 조건처럼 등장한다. 특히 7기에서 선발된 마크비전코리아와 같은 기업은 AI와 딥러닝을 활용해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고 브랜드 권리를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스타일테크가 단순히 '잘 팔게 해주는 기술'을 넘어 '신뢰와 권리,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스타일테크는 더 이상 마케팅이나 유통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산업 인프라의 일부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성과 지표를 통해 보더라도 이러한 구조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프로그램 전체로 보면 유망기업의 누적 투자유치 액은 3,800억 원을 넘었고, 고용과 매출 역시 상당한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성과가 뚜렷하게 가시화된 6기부터는 동반성장에서 자율성장의 구조로 이원화하는 구조를 잡았다. 초기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유지하되 지난 기수에서 참여했던 유망기업에 후속 스케일업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성장 지원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1~7기 스타일테크 프로그램의 선발 기업들은 단순히 "패션·뷰티·리빙 유망기업"의 목록이 아니다. 이들은 패션 산업의 운영 문제를 디지털로 해결하려는 초기 실험에서 출발해, AI 기반 자동화, 콘텐츠 생성, 데이터 분석, 그리고 나아가 하드웨어와 딥테크 영역까지 확장된 스타일 산업의 기술화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집합이다. 이러한 흐름은 스타일테크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패션·뷰티·리빙 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 것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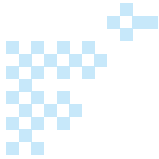
스타일테크 프로그램은 유행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사업이라기보다, 스타일 산업이 기술을 통해 어떻게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1기부터 7기까지의 기업 동향은, 이 변화가 아직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더 깊고 넓은 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동대문 패션 산업의 디지털화	중고 거래	라이브 커머스, 메타버스	개인 맞춤형 제품 제공	뷰티테크 확산	생성형 AI 적용	AI 기반의 밸류체인 혁신

■ 1기

AI를 바탕으로 브랜드와 딱 맞는 크리에이터를 연결해 주는 콘텐츠 마케팅 플랫폼, '브랜더진 (Brandazine)'을 운영한다. 브랜드는 브랜더진 안에서 제품을 전시하거나, 캠페인을 생성한다. 중간 에이전시 없이, 브랜드와 크리에이터의 매칭과 캠페인 운영을 자동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운영 중이며 2026년 하반기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기업개요



대표자명	고종원, 이건준
사업 구분	패션
서비스 구분	AI,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 소개	인플루언서 대상 패션 대여 플랫폼 '브랜더진'
서비스 상세 소개	브랜더진(Brandazine)은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를 연결해 콘텐츠를 중심으로 브랜드 성장을 설계하는 크리에이터 콘텐츠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브랜드는 브랜더진을 통해 제품을 쇼룸에 입고하거나 스튜디오에서 캠페인을 생성해 플랫폼에 가입된 크리에이터에게 다양한 협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크리에이터는 브랜드의 맥락을 이해한 콘텐츠를 제작·유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익을 창출합니다.

브랜더진의 핵심은 LLM 기반 기술을 통해 브랜드와 크리에이터의 맥락과 감도를 이해하고, 매칭과 운영 전반을 정교하게 자동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는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콘텐츠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또,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공감하는 브랜드와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협업을 이어가며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는 중간 에이전시 없이, 브랜더진 하나로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브랜더진은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운영 중이며, 2026년 하반기 미국 진출을 앞두고 글로벌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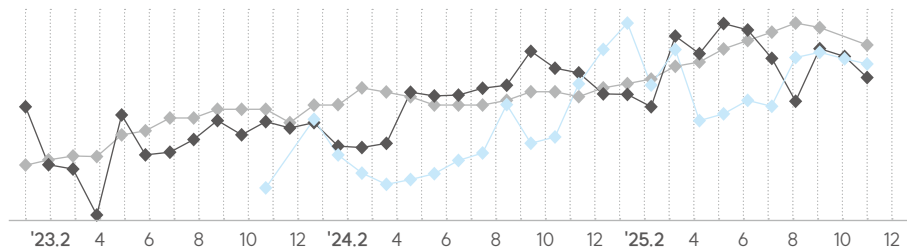
정량/정성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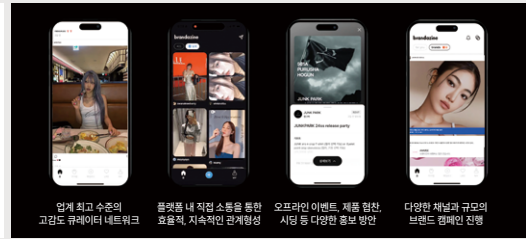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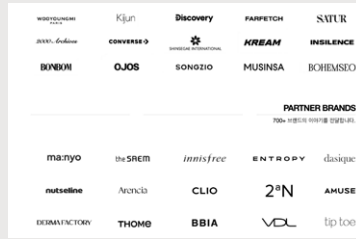
매출	78억 원(2025년 예상), 39.3억 원(2024년) 스타일테크 선정 전년도 매출액: 0원(2018년)
직원수	40명(2025년 12월) 스타일테크 선정 당시 고용인력: 0명(2019년)
투자유치 이력	총 누적투자유치액 약 105억 원 / series A
기타	2025년 3월 일본 법인 설립, 2026년 미국진출 예정 이용 고객 550개사 돌파

◆ 고용 인원
◆ 소비자 거래액
◆ 고유 방문자 수(MUV)

출처

혁신의숲(innoforest.co.kr)





대표 인터뷰

Q. 창업 배경 및 회사 소개

인에디트(Inédit)는 '좋은 콘텐츠가 인류를 가장 효과적으로 성장시키는 힘'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 기업입니다. 대표인 저는 영화, 책,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사과의 지평을 넓히는 경험을 하며, 좋은 콘텐츠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가장 큰 임팩트를 만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작업하는 창작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역으로, 창작자의 세계관과 메시지가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패션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브랜드진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이며, 창작자의 세계관과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Q. 스타일테크 지원 동기 및 참여 소감

2019년, 공동창업자인 이준준님과 함께 큰 피봇을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무실도, 충분한 자원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스타일테크 1기에 선정되며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팀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확보했고, 2020년 3월에는 피봇한 제품을 브랜드진 서비스 베타 버전으로 무사히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행사 참여 기회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파리 VivaTech 참여를 비롯해 여러 투자자 소개까지 이어지며, 창업자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스타일테크가 패션·뷰티·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Q. 스타일테크 지원 기업을 위한 조언 및 추천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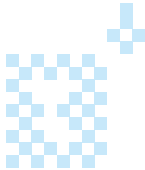
스타일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자자나 대기업과의 연결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 대표나 임원들과의 만남이 더 큰 배움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대한 가장 깊은 인사이트를 가진 분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을 때, 스타트업 대표들은 현실적인 인사이트와 영감을 얻고, 미래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제품과 전략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확신을 얻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초기에는 불특정 다수를 타겟으로 하기보다, 대표의 비전과 제품을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소수의 핵심 고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팬덤이 이후 성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타일테크 프로그램은 단기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제품과 비전을 깊이 검증하며 장기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팀, 그리고 학습과 실험에 열린 창업자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2기

헤어살롱이나 네일숍, 피부관리실 등의 '뷰티숍'을 위한 올인원 솔루션 '콜라보살롱'을 운영한다. 자동화된 예약관리와 고객 커뮤니케이션이 강점이다. '원장님의 성공을 돕는다'는 목적 아래, 1인숍부터 다인숍까지 소형 샵 창업자들이 본업인 '시술'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예약, 고객 관리, 매출 정산, 노쇼 방지, 마케팅 기능 등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해 제공한다.

기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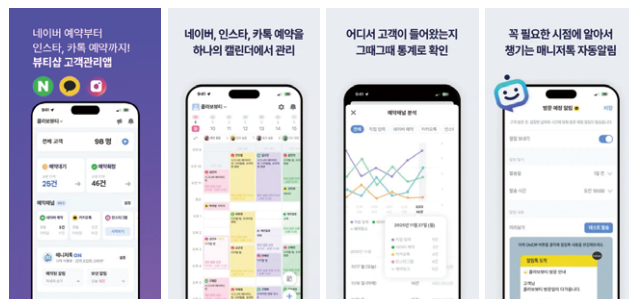


대표자명	김치영
사업 구분	뷰티
서비스 구분	플랫폼, SaaS
서비스 소개	뷰티숍 예약·고객·매출 통합 관리 모바일 솔루션 '콜라보살롱'
서비스 상세 소개	콜라보살롱은 헤어살롱, 네일숍, 피부관리실 등 뷰티숍 운영에 필요한 예약, 고객 관리, 매출 정산, 마케팅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한 '뷰티숍 성장을 위한 올인원 솔루션'입니다. 모바일 앱으로 1인숍 원장님부터 다인숍까지, 복잡한 매장 운영을 간소화하고 매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핵심은 빈틈없는 예약 관리와 자동화된 고객 커뮤니케이션입니다. 24시간 작동하는 가상 프론트 데스크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에 전용 링크를 공유해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을 앱 내 워크플로우로 흡수해 별도 관리 없이 정식 매출 데이터로 전환하고, 중복 예약을 방지합니다. 개인 일정을 통합 관리하며, 탭 한 번으로 예약 확인, 수정, 결제까지 가능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예약 확정, 변경, 취소, 방문 리마인더 알림을 카카오톡(알림톡)이나 문자로 자동 발송하고, 예약 시 예약금을 설정해 노쇼를 방지합니다. 입금 확인 및 안내 메시지 등이 자동화 되어 있고, 일별/월별 매출 흐름, 서비스별/직원별 기여도 등 8가지 시각적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경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등 뷰티숍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량/정성적 성과

직원수	10명(2025년 12월) 스타일테크 선정 당시 고용인력: 5명(2020년)
투자유치 이력	총 누적투자유치액 약 52억 원 / series A
기타	2018년 출시 후 미국·브라질·아르헨티나·대만·러시아 등 73개 국 15만 개의 뷰티숍 가입 2022년 미국 법인 설립





대표 인터뷰

Q. 창업 배경 및 회사 소개

대표인 저는 IT 및 플랫폼 서비스를 두루 경험하며 기술이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체감해왔고, 이를 뷰티 산업에 접목해 글로벌 성장을 만들고자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창업 당시 모바일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었으며, 뷰티 시장에서는 디자이너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가 강화되는 반면, 임금 상승 대비 시술비 인상이 어려워 중형 숍이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1인 숍 창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고, 이러한 창업자들이 본업인 '기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스타일테크 지원 동기 및 참여 소감

콜라보샬롱은 2020년에 2기로 참여했으며, 당시 지원받은 프로토타입 지원금이 서비스 초기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론칭 시점에 실제 고객 테스트를 진행하며, '초기에 실제로 팔리는 기능'이 무엇인지 검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본질은 현장을 이해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해 왔는데, 스타일테크 프로그램은 이러한 고객 중심의 실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Q. 스타일테크 지원 기업을 위한 조언 및 추천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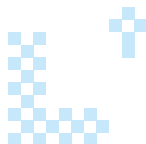
스타일테크 분야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과 이를 끝까지 실행하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브라질 론칭 당시, 팀은 현지에 베이스캠프를 두고 매일 숍을 직접 찾아다니며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했고, 이러한 방식은 현재 진출한 모든 국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책상 앞에 머무르기보다, 밖으로 나가 고객을 만나고 제품을 직접 팔아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스타일테크는 이러한 실행을 반복하며 고객을 집요하게 파고들 준비가 된 기업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3기

데이터 분석 도구인 '라방바 데이터랩'을 바탕으로 제작과 광고 분야에 맞춘 '이커머스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한다. 라이브커머스와 광고 시장이 여전히 개인의 감각과 경험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창업했다. 자체 제작한 매출 및 판매 추정 알고리즘과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핵심으로, 현재까지 약 90만 건의 방송 데이터를 확보했다.

기업개요



대표자명	양진호
사업 구분	리빙
서비스 구분	AI, 데이터
서비스 소개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시장 조사 서비스
서비스 상세 소개	데이터 분석 도구 '라방바 데이터랩'을 기반으로 라이브커머스 및 홈쇼핑 분야의 이커머스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라방바 데이터랩은 라이브커머스 18개 플랫폼과 홈쇼핑 16개 채널의 방송 정보, 매출·조회수·판매량 등 주요 판매 지표를 추정·통계화해 제공하며, 자체 알고리즘과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통해 약 90만 건의 방송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응용 솔루션을 공급 중입니다. '라방바 스튜디오'는 판매 데이터 기반 방송 기획·성과 분석을 수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광고 영상 제작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애즈순'은 다양한 매체의 광고를 통합 부킹·운영하는 서비스로 2024년 8월 기준 누적 8천여 건의 광고 집행과 월 3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방플러스'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및 핫딜 기반 리워드 마케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는 이를 통해 스스로 광고를 등록할 수 있고, 이 광고는 신한카드와 에이블리 앱에 노출되 반응을 보인 고객들에게 리워드를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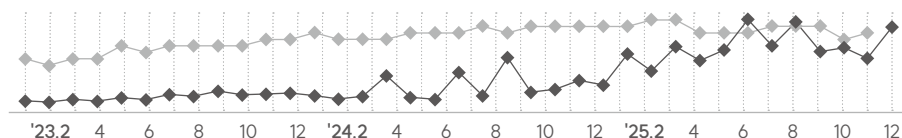
정량/정성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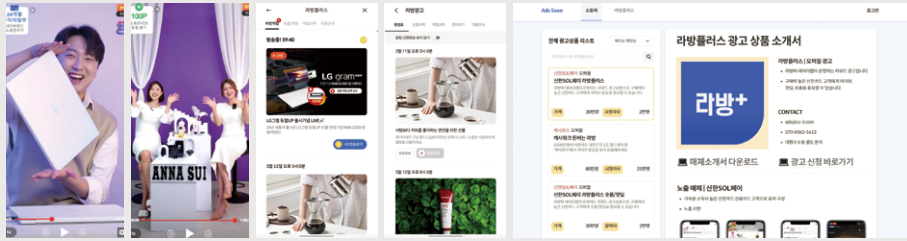
매출	30억 원(2025년 예상), 27.5억 원(2024년) 스타일테크 선정 전년도 매출액 0.5억(2020년)
직원수	13명(2025년 12월) 스타일테크 선정 당시 고용인력 3명(2021년)
투자유치 이력	총 누적투자유치액 8억 원 / Pre-A
기타	2024년 8월 기준 약 90만 건의 방송 데이터 확보 대중견기업 협업 2건 신한카드 : 매체를 활용한 광고 협업 이랜드 : 라이브커머스 시장조사 협업 수상 2건 딥체인지 스타트업 데모데이 홈앤쇼핑상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사내벤처 데모데이 우수상

◆ 고용 인원
◆ 소비자 거래액

출처

혁신의숲(innoforest.co.kr)





대표 인터뷰

Q. 창업 배경 및 회사 소개

저는 신한카드에서 근무하며 데이터·광고·커머스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결제 데이터와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며, 숫자와 실제 현장 사이의 간극을 반복적으로 체감했고, 라이브커머스와 광고 시장이 여전히 개인의 감각과 경험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한카드 사내벤처 프로그램 ‘아임벤처스 4기’를 통해 창업을 하게 되었고, 내부 검증을 거쳐 독립 법인으로 분사해 법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현재는 씨브이쓰리를 통해 라이브커머스와 광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션·뷰티 브랜드의 성과 개선을 돕는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스타일테크 지원 동기 및 참여 소감

라이브커머스와 광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 가설이 실제 패션·뷰티 시장에서도 유효한지 검증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2021년에 3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검증과 PoC를 통해 현장에서 통할 수 있는 솔루션인지 확인하고자 했고,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초기 가설과 다른 결과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스타일테크 프로그램은 이러한 가설 오류를 빠르게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실험 환경과 피드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방향을 보완하고 일부 영역은 과감하게 피보팅할 수 있었으며, 이 경험이 씨브이쓰리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일테크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제 시장 안에서 사업을 단단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돕는 실천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Q. 스타일테크 지원 기업을 위한 조언 및 추천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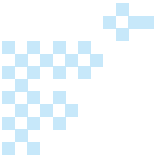
스타일테크 분야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실함과 절실함, 그리고 도전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패션·뷰티 산업은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한 시장이기 때문에, 문제를 피상적으로 바라보다 실제 불편과 요구를 진지하게 마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스타일테크는 정답이 정해진 분야가 아니기에, 실패와 수정의 과정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가설을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기간의 성과보다 성장이라는 긴 여정을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 자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기업이라면 스타일테크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기

커머스 콘텐츠 제작 전 과정 자동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온라인 커머스에서 상품 촬영과 상세페이지 제작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이지만, 여전히 높은 비용과 인력 부담이 들어가는 영역이기도 하다. MD·디자이너·카피라이터 협업을 통해 수 시간에서 수일이 소요되던 작업을 평균 15~30초 이내로 단축하는 기술 구조가 핵심이다.

기업개요



대표자명	강성훈
사업 구분	패션
서비스 구분	AI, 로보틱스, SaaS
서비스 소개	AI 기반 커머스 콘텐츠 자동 생성 서비스
서비스 상세 소개	주요 솔루션인 AI 상세페이지 자동 생성 SaaS '젠시(GENCY)'와 AI 촬영 로봇 '젠시(GENCY) PB'를 통해 오프라인 촬영 영역까지 자동화하며, 촬영부터 상세페이지 제작, 판매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하나의 기술 흐름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젠시는 'AI 기반 커머스 상세페이지 자동 생성 SaaS'입니다. 상품 이미지 업로드로 제품 분석, 문장 생성, 디자인 구성, 레이아웃 배치까지 상세페이지 제작 전 과정을 자동 수행합니다. 기존 커머스 환경에서 MD·디자이너·카피라이터 협업을 통해 수 시간에서 수일이 소요되던 작업을 평균 15~30초 이내로 단축하는 기술 구조를 갖췄습니다. 멀티 모달 AI 기술 기반 이미지·텍스트 동시 분석을 통해 제품 속성, 소재, 핏, 디테일 자동 추출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해당 솔루션은 신성통상, F&F 등 국내 주요 패션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 엔터프라이즈 고객사에 실제 도입, 운영 중입니다.

젠시 PB는 '피지컬 AI 로보틱스 기반 촬영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전문 사진작가의 촬영 노하우를 학습한 AI 기반 로봇 제어를 통해 제품 촬영 및 인물 촬영 전 과정의 자동화를 구현합니다. 카메라 앵글, 구도, 조명, 동선, 포즈 연출 등을 실시간 제어해 일관성·재현성을 확보, 고품질 촬영 결과를 제공합니다.

정량/정성적 성과

매출	6억 원(2025년 예상), 4.7억 원(2024년) 스타일테크 선정 전년도 매출액 0.03억 원(2021년)
직원수	23명(2025년 12월) 스타일테크 선정 당시 고용인력 10명(2022년)
투자유치 이력	총 누적투자유치액 33억 원 / Pre-A
기타	신성통상, F&F 등 패션 커머스 콘텐츠 제작 협업 BMW, Intel, Galderma, SKT 등과 로보틱스 협업 특허 커머스 콘텐츠 자동 생성 관련 국내·미국 특허 다수 수상 CES 혁신상 3년 연속 수상(2024~2026) AI 및 공간컴퓨팅 분야에서 CES 최고혁신상 2회 수상



대표 인터뷰

Q. 창업 배경 및 회사 소개

스튜디오랩은 온라인 커머스에서 상품 촬영과 상세페이지 제작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용과 인력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표인 저는 삼성전자에서 AI 기반 의류 분석 및 콘텐츠 기술을 연구하며, 이러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현재는 커머스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을 자동화해 누구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성형 AI와 피지컬 AI 기술을 기반으로 커머스 콘텐츠 제작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스타일 테크 기업입니다.

대표 서비스인 젠시(GENCY)와 젠시 PB(GENCY Physical Bot)는 온오프라인 커머스 환경에서 비용과 시간이 집중되는 콘텐츠 제작 영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폭넓은 고객층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Q. 스타일테크 지원 동기 및 참여 소감

스튜디오랩은 기술 중심 기업이지만, 패션·라이프스타일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증 기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스타일테크 4기에 지원했습니다. 스타일테크는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기술 기업을 실제 스타일 산업 현장과 연결해 검증과 성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 완성도뿐 아니라 산업 적합성과 사업화 가능성까지 함께 고민해 준다는 점에서, 스타일 테크 프로그램은 참여 기업에게 매우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Q. 스타일테크 지원 기업을 위한 조언 및 추천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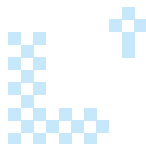
스타일테크 분야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산업에 대한 이해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일 산업은 감각과 경험의 비중이 큰 만큼, 기술이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못하면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준비되어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실증과 사업화 경험이 필요한 기업에게 특히 스타일테크 8기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등 스타일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며, 실제 제품이나 솔루션을 보유하고 한 단계 도약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스타일테크 프로그램을 통해 명확한 방향성과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기

“가볍게 쓰고, 사용 후에는 순환될 수 있는 제품”을 목표로 400가지 이상의 종이 가구·모듈 제품을 개발해왔다.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는 디자인을 기본으로, 95% 이상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고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제품을 개발하려 한다. 2029년까지 6,000개 상품을 선보이며 많은 이가 ‘새로운 가구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기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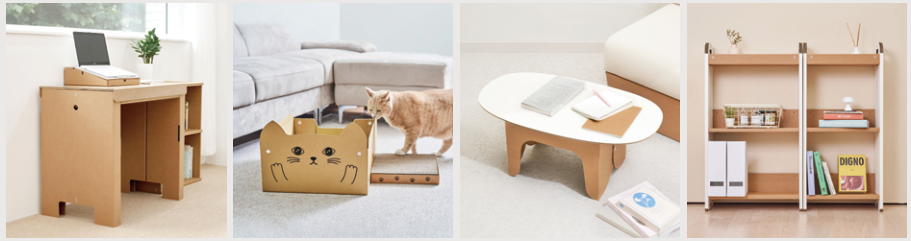


대표자명	박대희
사업 구분	리빙
서비스 구분	신소재
서비스 소개	종이로 만드는 가볍고 친환경 가구, 페이퍼팝
서비스 상세 소개	페이퍼팝은 종이 가구를 만들면서 원재료 공급·제작·포장·배송은 물론, 사용 후 버려지는 순간까지의 제품 순환 전 과정을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소비”가 자연스러워지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갑니다.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는 디자인을 기본으로, 95% 이상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고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400가지 이상의 종이 가구·모듈 제품을 개발했으며, 2029년까지 6,000개 상품으로 확장해 더 많은 사람이 지속가능하고 취향에 맞는 가구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정량/정성적 성과

매출	20억 원(2025년 예상), 17억 원(2024년) 스타일테크 선정 전년도 매출액 17억 원(2022년)
직원수	13명(2025년 12월) 스타일테크 선정 당시 고용인력 17명(2023년)
투자유치 이력	총 누적투자유치액 4억 원 / Seed
기타	포스코, LG 사이언스파크, 유한킴벌리, 기아차 등 대중견기업 협업 통한 종이 가구 제작 수상 2025 기아 제4회 PBV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성동구 MYSC 제9회 소셜벤처혁신경연대회 최우수상 건국대학교 2025 KU IR Camp 데모데이 최우수상 2024 인천광역시 사회경제지원센터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 우수상 서울디자인재단 2024 DDP디자인론칭페어 컬래버레이션 베스트어워드 시민상 2023 한국디자인진흥원 사회적기업 디자인사업 우수성과 수상 등



대표 인터뷰

Q. 창업 배경 및 회사 소개

대표인 저는 인쇄 패키지 회사에서 근무하며 한번 쓰고 버려지는 고급 종이를 보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직접 종이로 책장을 만들어 판매한 경험을 통해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페이퍼팝을 창업했습니다.

페이퍼팝은 허니콤보드·골판지 기반의 종이 가구와 전시 구조물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며, “가볍게 쓰고 사용 후에는 순환될 수 있는 제품”을 목표로 일상과 전시 환경에서 친환경 가구를 제안합니다.

Q. 스타일테크 지원 동기 및 참여 소감

스타일테크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페이퍼팝이 단순히 ‘종이로 만든 가구’를 넘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브랜드로 더 크게 성장하려면 패션·뷰티처럼 스타일 산업의 언어(브랜딩·콘텐츠·유통·협업)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이 소재의 가구·전시 구조물은 기능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공간 연출과 취향(방구·다꾸)처럼 ‘스타일’로 소비되는 제품이라서 스타일테크 프로그램이 가장 맞는 무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타일테크 프로그램은 기술(Tech)로 스타일(Style)을 확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지원사업이라기보다, 브랜드의 감도와 제품 경험을 정교하게 다듬고, 콘텐츠·유통·협업을 통해 시장에서 검증하며, 투자·파트너십까지 연결해 성장 루트를 만들어주는 액셀러레이션이라고 봅니다.

페이퍼팝은 이 과정을 통해 “가볍고 친환경적”이라는 기능적 장점을 넘어, 고객이 체감하는 취향이 되는 제품·공간으로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만들고, 동료 기수들과 함께 새로운 사용 장면을 확장해보고자 합니다.

Q. 스타일테크 지원 기업을 위한 조언 및 추천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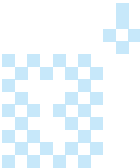
스타일테크는 ‘제품 =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기능만으로 제품을 선택하지 않고, 제품이 가진 스토리와 취향에 공감하며 소비합니다. 취향이 점점 파편화되는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두를 만족시키기보다 열광하는 한 명의 팬을 만들고, 그 스토리를 통해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스타일테크 프로그램은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보여주고, 어떤 고객에게, 어떤 채널로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기업에게 특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페이퍼팝 역시 초기에는 ‘종이’라는 소재와 기능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을 나열하기보다 제품을 하나의 ‘취향 경험’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6기

AI 기반 피부·두피 진단 기술과 자동화 맞춤형 화장품 제조 시스템을 결합한 초개인화 뷰티테크 플랫폼 기업이다. 개인의 피부 상태와 수분도를 정밀 측정, 이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 솔루션을 갖췄다. 개인별 피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분석-처방-즉석제조-관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맞춤형 스킨케어 서비스를 구축해왔다.

기업개요



대표자명	안선희
사업 구분	뷰티
서비스 구분	AI
서비스 소개	AI 기반 피부·두피 진단과 자동화 조제 기술을 결합한 초개인 맞춤형 스킨케어 솔루션

서비스
상세 소개

릴리커버는 AI 기반 피부·두피 진단과 자동화 맞춤형 화장품 조제 시스템을 결합해 개인의 피부 상태에 최적화된 화장품과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진단-분석-처방-즉석제조-관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End-to-End 구조를 갖추어, 소비자는 자신의 피부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적합한 화장품을 즉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조제 솔루션을 실제로 구현하는 핵심 장비는, 조제 기기 '에니마(ENIMA)'입니다. 로봇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위생성과 정량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화장품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소비자가 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조제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에니마에 더해 피부·두피 진단 디바이스 '물리(Muilli)'도 개발했습니다. 60배율 카메라와 임피던스 센서를 활용해 피부 상태와 수분도를 정밀 측정하며, 98.3%의 진단 정확도를 확보했습니다. 태블릿PC 및 모바일 기기와 연동되는 전용 앱을 통해 진단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현장 환경에 적용 가능합니다.

정량/정성적 성과

매출	31.3억 원(2024년) 스타일테크 선정 전년도 매출액 : 21.4억 원(2023년)
직원수	20명(2025년 12월) 스타일테크 선정 당시 고용인력 : 23명(2024년)
투자유치 이력	총 누적투자유치액 : 53.7억 원 / series A
기타	샌드박스 규제특례 연장 승인 2025년 한국기술신용평가 TCB(Tech Credit Bureau) 최고등급 TI-1 획득 2023년 디자인혁신유망기업 선정 수상 2025 2025 대한민국 'Digital Innovation Award' 수상 2025 인터참코리아 라이징 어워드 디바이스 부문 수상 2024 2024년 베트남 스타트업 경진대회 'Startup Wheel 2024' 1위 Women in IT 디지털혁신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202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을 통한 경제발전 표창



대표 인터뷰

Q. 창업 배경 및 회사 소개

대표인 저는 컴퓨터공학 전공 후 LG전자 연구원,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약 10년간 화상 치료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수행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며 피부 손상이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과 자신감에 깊게 연결된다는 점을 직접 경험했고,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부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기반 솔루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피부 상태를 쉽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릴리커버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릴리커버는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AI 진단과 자동화 조제를 결합한 초개인화 뷰티테크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진단-조제-데이터 관리까지 통합된 구조로, 매장·클리닉·브랜드 등 다양한 B2B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Q. 스타일테크 지원 동기 및 참여 소감

릴리커버는 기술과 산업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스타일테크 프로그램을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스타일 산업과 신기술이 결합된 실제 사업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고 2024년에 6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시장 적용과 확장을 고민하던 시점에서, 스타일테크가 제공하는 기업 진단,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대·중견기업 협업 연계가 릴리커버의 성장 단계와 잘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기술 중심 기업이 스타일 산업 안에서 어떻게 서비스로 구현되고, 기존 산업과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준다는 점에서 스타일테크 프로그램의 가치를 크게 느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스타일테크 지원 기업을 위한 조언 및 추천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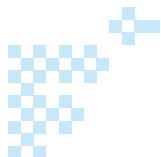
스타일테크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완성도뿐 아니라 현장 적용 가능성과 산업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운영되기 어렵다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타일 산업은 소비자 경험과 감성이 중요한 영역인 만큼, 기술을 서비스와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타일테크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단계보다는 기술과 시장을 모두 경험해 본 기업에게 특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화 방향이나 협업 구조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자신의 기술을 제품을 넘어 서비스와 경험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스타일테크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기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조 상품과 브랜드 침해 문제를 AI 기술로 통합 관리하는 IP 보호 솔루션 'MarqAI'를 개발한다. 브랜드 자산이 지나치게 쉽게 복제되고 왜곡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고 창업했다. 온라인 채널에서 브랜드 자산의 활용 현황을 실시간 분석하고, 탐지와 제재, 결과 분석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기업의 IP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려 한다.

기업개요



대표자명	이인섭
사업 구분	패션
서비스 구분	AI
서비스 소개	생성형 AI 기반 브랜드 보호 솔루션 'MarqAI'
서비스 상세 소개	마크비전은 AI 기반 IP 통합 관리 솔루션 MarqAI를 개발합니다.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조 상품 및 브랜드 침해 문제를 AI 기술로 통합 관리하며, 탐지부터 제재, 결과 분석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기업의 IP 운영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MarqAI는 글로벌 이커머스, SNS, 오픈마켓, 웹사이트 등 1500개 이상의 플랫폼을 24시간 자동 모니터링하며, 키워드 분석, 이미지 인식, 텍스트 유사도 분석을 통해 위조 상품 판매 리스팅, 무단 이미지 사용, 상표 오·남용 사례를 탐지합니다.

AI 클러스터링 기술로 반복 침해 셀러를 네트워크 단위로 식별하며, 브랜드별 정책에 따라 국가, 할인율, 특정 키워드, 이미지 사용 여부 등을 스마트 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탐지된 사례는 우선순위에 따라 자동 분류되며, 필요 시 테스트 구매를 통한 정·가품 여부 확인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탐지·제재 결과는 통합 대시보드에서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정량/정성적 성과

매출	205.3억 원(2025년 예상) 스타일테크 선정 전년도 매출액 : 151.6억 원(2024년)
직원수	188명(2025년 12월) 스타일테크 선정 당시 고용인력 : 176명(2025년)
투자유치 이력	총 누적투자유치액 약 1,240억 원 / series B
기타	2024년 '마크AI 런칭', 시리즈A+ 220억 투자유치 2022년 프랑스 파리 거점 오피스 설립 2022년 구글 저작권 보호 지원 프로그램 "TCRP" 공식 파트너사 선정 수상 2022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주관 'LVMH 이노베이션 어워드' 대상 2020 대한민국 인공지능대상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상



대표 인터뷰

Q. 창업 배경 및 회사 소개

마크비전은 하버드 로스쿨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공부하며 온라인 시장 성장 과정에서 브랜드 자산이 쉽게 복제·왜곡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위조 상품과 무단 콘텐츠 사용은 브랜드 신뢰와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많은 기업이 여전히 인력과 비용에 의존해 대응하고 있다는 한계를 느끼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사명인 마크비전(MarqVision)은 프랑스어 ‘마크(Marque, 상표)’와 ‘비전(Vision, 컴퓨터 비전 기술)’을 결합한 이름으로, 브랜드 자산 보호를 기술로 구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크비전은 기술과 법률 전문성을 기반으로 패션·뷰티 등 스타일 산업의 브랜드 신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스타일테크 지원 동기 및 참여 소감

패션·뷰티 브랜드가 디지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위조 상품, 무단 유통, 이미지 도용 등 브랜드 침해 문제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크비전은 AI 기술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브랜드가 본래의 가치와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스타일테크 7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스타일테크 프로그램은 패션·뷰티 산업과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참여를 계기로 패션·뷰티 산업에 특화된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브랜드와 함께 성장하는 스타일테크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Q. 스타일테크 지원 기업을 위한 조언 및 추천 메시지

패션·뷰티 산업에서 스타일테크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브랜드 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함께 높아지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이미지, 콘텐츠가 곧 경쟁력이 되는 산업 특성상, 브랜드 자산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술적으로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역량과 산업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하며, 실제 브랜드 운영 환경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솔루션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플랫폼, 브랜드, 기술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건강한 유통·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스타일테크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패션·뷰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을 통해 실제 브랜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스타일테크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유통 관리, 콘텐츠 활용, 브랜드 신뢰 제고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솔루션을 가진 팀이 스타일테크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7년의 여정, 스타일테크 산업의 성장을 주도한 혁신의 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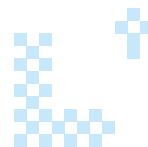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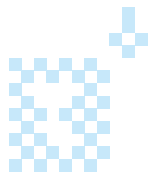
‘스타일테크 AC 프로그램’은 지난 7년간 단순한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패션·뷰티·리빙 등 라이프 스타일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핵심 엔진 역할을 수행해 왔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초기, 국내 스타일 산업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모델을 찾지 못해 정체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7년 동안 총 132개의 정예 유망기업을 선발해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기술과 디자인이 결합된 ‘스타일테크’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 전 세계는 ‘K-컬처’의 열풍 속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K-뷰티와 K-패션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스타일은 이제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스타일테크 산업에 전례 없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다.

향후 스타일테크 AC 프로그램은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초격차 기술’을 입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AI 기반의 개인화 추천,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상 피팅, 콘텐츠 제작, 블록체인을 활용한 위조 상품 방지 기술 등은 K-패션과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치를 유지하고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특히 6기와 7기에서 두드러진 리빙 분야의 확장과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ESG 관련 기술의 도입은, 대한민국 스타일테크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글로벌 표준으로 성장할 것임을 시사한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한국의 화장품을 바르고, 한국의 옷을 입으며, 한국의 스마트 리빙 가구로 집을 꾸미는 과정에서 스타일테크 기업들의 혁신 기술은 보이지 않는 혈관처럼 산업 전반을 지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일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난 7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전략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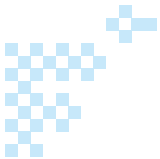
첫째, 기술의 심화와 융복합 가속화다. 스타일테크 AC 프로그램의 결과 분석에서 나타났듯, AI는 이제 모든 스타일테크의 기본 인프라가 되었다. 앞으로는 단순한 AI 적용을 넘어, 제조-유통-마케팅-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로봇, 신소재, 센서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토털 솔루션 형태의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오픈이노베이션의 질적 고도화다. 단순한 PoC(기술 실증) 수준을 넘어, 공동 브랜드 론칭이나 글로벌 공동 진출과 같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결합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안정적인 테스트베드를 확보하고, 대기업은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상생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디자인 주도 성장 전략 강화가 필요하다. 디자인 주도 스타트업의 가장 큰 강점은 문제를 기술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에서부터 정의한다는 점이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사용자의 실제 경험에서 발견하고, 이를 서비스 기획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러한 접근은 빠른 프로토타이핑과 반복적인 검증을 가능하게 하며, 사용자 경험의 질을 높여 고객 충성도를 강화한다. 그 결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 보다 빠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에어비앤비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용자 경험에서 출발한 디자인 주도 전략은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존 산업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글로벌 스탠다드 선점이다. K-스타일에 대한 전 세계적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스타일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기술 표준과 서비스 표준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외 인증 지원 및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난 7년이 스타일테크라는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운 시기였다면, 미래는 스타일테크의 줄기가 굵어져 글로벌 무대에서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결실의 시기가 될 것이다. 8기부터 또 다시 도전을 시작할 스타일테크 AC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유망기업이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고 디자인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자이자 파트너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스타일테크는 이제 단순한 산업 분류를 넘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미래 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이름이 될 것이다.



스타일테크 1~7기 선정 유망기업

스타일테크
엑셀러레이팅 (AC)
프로그램 Timeline

1~3월	4월	5월	6월	7월
모집 공고 CES, MWC 참가 지원	유망기업 평가·최종 선정	국내외 프로모션 참여 기업 선정	기업 진단, 협약 체결, 밋업 1차, 전문 디자이너· 공유오피스 지원, VIVATech 참가지원	분야별 멘토링,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프로그램 중간 점검, 밋업 2차, 프로토타입 기업 선정, 데모데이 대상 기업 선정	유망기업 미디어 홍보, IFA 참가 지원, 밋업 3차, 미국 진출 지원	일본 진출 지원	스타일테크 국내 데모데이 개최, 일본 진출 지원, 프로그램 홍보, 스타일산업 협의회	성과 조사

기수	기업명	대표자명	서비스 소개	홈페이지 주소
1기	거북선컴퍼니	엄승현	도매-소매-사업자 간 1:1 쇼핑물 협업툴 솔루션 '터틀체인'	
	로로젼	김한울	AR기반 이커머스 대상으로 AR콘텐츠 및 마케팅 솔루션	lologem.com
	마들렌메모리	유재원	B2B 중고마켓 통합 솔루션 '릴레이'	mmemory.kr
	멋들어진	변경덕	MTO 패션 가상제작 및 주문/생산 관리 솔루션 플랫폼 '플러그'	mjin.co.kr
	버닝브로스	서성욱	베트남 여성 대상 패션 커머스 플랫폼 '다비'	
	버추어라이브	이재열, 심재현	AR 기반 헤어스타일 체험 및 디자이너 중개 플랫폼 '헤어핏'	
	브링코	김태환	글로벌 유저를 위한 한국 상품 구매대행 플랫폼 '브링코'	bringko.com
	석세스모드	주병천	쇼핑 이미지 내 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	
	세이프웨어	배경란	웨어러블 에어백	safeware.co.kr
	셀러허브	이상민	온라인 판매 통합관리 플랫폼 '셀러허브'	sellerhub.co.kr
	슈퍼웍스컴퍼니	전진우	커스텀 브랜드 창업 솔루션 서비스 '커스텀빌리지'	superworks.co.kr
	스타일봇	김소현	AI 기반 가상 의류 코디 플랫폼 '스타일봇'	stylebot.co.kr
	스트롱소다	장나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형별 의류 추천 플랫폼	
	쑤잉	김수지	빅데이터 기반 샘플 제작/생산/납품 O2O 플랫폼	
	아이클레이브	최윤내	로보머천다이어지를 활용한 AI 기반 이커머스 운영 자동화 서비스 '로보MD'	iclave.co.kr
	에이비제트	최하림	인플루언서 대상 소셜커머스 플랫폼 '인포크스토어'	inpock.co.kr
	옵니어스	전재영	AI 기반 이커머스, 패션 이미지 및 트렌드 분석 서비스	omnicommerce.ai
	인에디트	고종원, 이건준	인플루언서 대상 패션 대어 플랫폼 '브랜드더진'	brandazine.com
	종달랩	성종형	AI 기반 의류 원부자재 유통 플랫폼 '부자마켓'	jongdali.com
	체리피카	정두선	여행/패션 테마의 SNS 라이브 쇼핑물	
	키즈픽	김두환	유아동복 큐레이션 쇼핑물	
	틸투원	서철우	AI 빅데이터 기반 패션 큐레이션 플랫폼	
	프롬	이은호	글로벌 뷰티/패션 상품 직구 연결 플랫폼	

기수	기업명	대표자명	서비스 소개	홈페이지 주소
2기	디파인드	김주형	디지털 기반 신발 사이즈 측정 플랫폼 '슈픽'	
	메이크미업	조재현, 김소연	개인 맞춤형 뷰티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서비스 플랫폼 '나만의 화장대'	
	보고플레이	류승태	1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보고'	
	보더리스	이중석	언택트 글로벌 패션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border-less.kr
	뷰티메이커스	안태준	화장품 제조 및 판매대행 플랫폼 '뷰티메이커스'	beautymakers.net
	브라켓프로젝트	김다정	온라인 패션 편집샵 '디자인넥트'	
	스타일패치	모소영	패션화보 콘텐츠와 커머스를 결합한 원스톱 패션 플랫폼	
	슬라운드	용현석	신소재 매트리스 및 수면 제품 전문 브랜드 '슬라운드'	slound.co.kr
	씨앤에이아이	양동민	Deep Learning 기반 섬유원단 재고 및 색상트렌드 예측 모델 플랫폼	cnaai.kr
	에이아이바	김보민	AR, VR 기반 신체 사이즈 측정 시각화 서비스 플랫폼 '마이핏'	myfiit.ai
	에이에이치코퍼레이션	한상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미드모스트'	midmost.kr
	웨이브컴퍼니	조나연, 이상철	재활과학 기반 점착실리콘/전도성실리콘 기능성 의복 연구	wavecompany.net
	콜라보그라운드	김치영	뷰티샵 대상 CRM 서비스 플랫폼 '콜라보 살롱'	colavo.kr
	클로넛코퍼레이션	차주환	비디오 숏클립 패션 커머스 플랫폼	
	턴백	정준하	온라인 중고명품가방 시세조회 및 경매 플랫폼 '턴백'	turnbag.co.kr
3기	파뎀	최영열	AI 기반 맞춤형 향수 커머스 서비스 '파뎀'	paffem.me
	패션에이드	백하정	B2B 스타일링 콘텐츠 자동 제작 솔루션 '스타일AI'	styleai.io
	뉴닉스	서정민	풀필먼트 기반 패션 커머스 플랫폼 '브랜드', '하이바' 등	brandi.co.kr
	닥터케이헬스케어	강형진	피부고민 사용자 대상 온라인 기반 맞춤 화장품 서비스 '스킨핏프로그램'	dkhc.kr
	동글	최영하	도매상인 대상 패션 도매 플랫폼 '동글'	
	라이크나트	이예린	여성 대상 속옷 큐레이션 플랫폼 '폴라'	poola.co.kr
	룩코	고해신	AI 기반 내 옷장 관리 및 패션 추천 플랫폼 '에이클로젯'	acloset.app
	매치	반은정	개인 맞춤형 가발 헤어수트	
	씨브이쓰리	양진호	라이브커머스 메타정보 데이터 분석 도구 '라방바 데이터랩'	cv-3.com
	에프앤에스홀딩스	최현석	3D 기반 최신 패션 콘텐츠 매거진 플랫폼 '패스커'	fassker.com
	옵티클라이프	박한길	위치정보 기반 전국 안경원 검색 및 예약 서비스 플랫폼 '옵티클라이프'	opticlifeco.kr
	제이펀	주현호	해외진출 희망 기업 대상 퍼포먼스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jfun.co.kr
	타카온비앤티	강덕호	AR 기반 뷰티 라이프 플랫폼 '티커'	
	테나씨티	박원재	의류 중고거래 및 마이너스 탄소 플랫폼 '반복'	
	패시온	김지연	옷장-샵 연계 코디/상품 추천 패션 커머스	fash-on.store
4기	페이커즈	이중재	AI 기반 온라인상 가짜상품 탐지 솔루션	faikerz.com
	나인투스	기희경	개인별 발모양 맞춤형 깔창 및 신발 브랜드 '워킹마스터'	walking-master.com
	데이터몬스터즈	이제원	빅데이터, AI 기반 스타일 속성 검색엔진 서비스 'YOIT'	
	디자인스튜디오임성묵	임성묵	지속가능한 생활용품 및 의류 등을 개발,판매	dsism.net
	딥센트	권일봉	AI 및 빅데이터 기반 향기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deepscent.shop
	라텔즈컴퍼니	이온	페타이어 활용 업사이클링 신발	treadngroove.com
	리더스오브그린소사이어티	임관섭	친환경 소재 가방 브랜드 '코드그린' 및 친환경 인증 리워드 플랫폼 '코드그린스퀘어'	codegreen.io

기수	기업명	대표자명	서비스 소개	홈페이지 주소
4기	모이버	임동석	NFT 투자 플랫폼 및 한정판 가치 창출 유도 플랫폼	moiber.com
	비주얼소사이어티	구동현	중고 명품 거래 패션 플랫폼	applixy.com
	스튜디오랩	강성훈	AI 기반 패션 상세페이지 자동 생성 서비스 '젠시'	studiolab.ai
	안티그래비티	연봉근	언더웨어 사이즈 측정 큐레이션 서비스 및 언더웨어 브랜드 '아나콘다 언더웨어'	anaconda.fit
	에픽타이거	최하림	버추얼 아바타 제작 및 피팅, 스타일링 SNS 플랫폼 '물팅'	
	여심서울	김동희	베트남 수출 및 유통 서비스 플랫폼 '여심'	yeosim.com
	오오티디	이형진	패션정보 공유 플랫폼 '오오티디'	ootdkorea.com
	옵니아트	이성동	패션 브랜드 개발 및 IP 커머스 플랫폼 '얼킨캔버스'	omniart.co.kr
	유유유유유	김민서	젤 네일 스티커 브랜드 'UUUUU'	uuuuu.ai
	윤희	노힘찬	순환 패션 플랫폼 'CARE ID'	yune.life
	인텔리시스	박성찬, 박은영	AI 기반 색조 화장 제품 큐레이션 서비스	intellisys.co.kr
	크래쉬컴퍼니	장승규	헤어디자이너 대상 고객관리 및 예약관리 시스템 '헤이디'	crash.oopy.io
	포에버링	이신우	모듈화 주얼리 판매 및 웨어링 서비스 브랜드 '바꿈'	
	피키	이지홍	글로벌 대상 스킨케어 커뮤니티, 쇼핑 리워드 서비스	gopicky.com
5기	멘디	정인준	비대면 수선 서비스 '멘디'	mendii.co.kr
	뷰넥스	박행운	AI,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ICT 뷰티 디바이스	beaunex.net
	뷰티아이디	박상언	AI 기반 개인 맞춤형 네일 플랫폼 '아이네일'	beautyid.io
	블랙탠저린	김상이	AI 기반 퍼스널 쇼퍼 서비스 '코콘'	blacktangerine.notion.site
	세컨드클로젯	이유빈	재고 의류 활용 AR 및 커스터마이징 솔루션	secondcloset.shop
	소프엔티	한설아	PFAS-free 나노섬유램브레인 복합소재 '비블로텍'	sofnt.com
	슈퍼빅	이승호	AI 와 XR 기술 기반 콘텐츠형 인터랙티브 라이브 커머스	supervic.kr
	아이딕션	양재민	비대면 신체 사이즈 측정, 제공 서비스 플랫폼 '사이즈잇'	idic.io
	에스틸리	한경식	AI 모델 및 서비스 솔루션	
	위고페어	김종면	AI 기반 위조 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위고페어'	wegofair.com
	유어라운드	김지수	맞춤형 가상인물 제작 서비스	uaround.ai
	주피터랩스	안강휘	동대문 도소매상을 위한 솔루션 및 폴필먼트 서비스 '위빙'을 개발하는 기업	jupiterlabs.co.kr
	커버써먼	이재호	기능성 패션 브랜드 '키크'	keek-line.com
	코스모블라썸	윤혜원	비건 화장품 브랜드 '캠퍼스블라썸' 및 AI 스킨케어 피팅 서비스	campusblossom.com
	크리스틴컴퍼니	이민봉	디자이너 슈즈 브랜드 '크리스틴' 및 데이터 기반 신발 생산 플랫폼 '신플'	kristinkorea.com
	클라바타	정지한	AI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솔루션	clavata.com
	테일러타운	김희수	3050 남성 패션 커머스 '댄블'	danble.co.kr
	투모로우스페이스	강석환	브랜드 라이선싱 웨어러블 로봇	
	페이퍼팝	박대희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가구 제조	paperpop.co.kr
	플레저	황정윤	테니스 코트 및 레슨 예약 플랫폼 '플레저'	pleisure.co
	플리닉랩스	이성균	플라즈마 뷰티 디바이스 및 AI 기반 피부관리 앱 '플리닉'	pliniclabs.com
	플립션코리아	정훈진	AI 기반 가상 인물 제작 솔루션	fliption.com

기수	기업명	대표자명	서비스 소개	홈페이지 주소
6기	글로벌링	김나연	재고 의류 글로벌 유통 중개 플랫폼	
	딥픽셀	이제훈	주얼리/패션/뷰티 AR 가상 착용 피팅 솔루션 엔진 및 서비스 라이선스	deepixel.xyz
	라온버드	천세욱	의류 이미지 생성 및 피팅 솔루션 'LAONGEN.AI'	laonbud.com
	라이트루트	신민정	이차전지 분리막 필름 기반 재활용 소재 개발 및 '텍스닉'	texnic.kr
	랩엠제로	신태호	친환경 소재 연구 및 소재 중심 제품 디자인 개발	mzero.kr
	루머	김희원	예약 사이트 빌더 및 데이터 자동화 SaaS '지금예약'	
	리베이션	이민성	친환경 패키징 원스톱 솔루션	revation.co.kr
	리브포워드	김미연	가상 샘플 제작 패션 3D 소프트웨어 솔루션 '팔레트'	shop.falette.co
	리틀캣	김대용	반려동물 헬스케어 가전제품, 일반제품 및 앱 서비스	thelittlecat.kr
	릴리커버	안선희	두피/피부 진단 기기 및 맞춤형 뷰티 브랜드 'BALANX', 'OREBIT'	lillycover.com
	매스어답션	박찬우	AI 기술 기반의 리테일 CRM 솔루션 '버클'	viracle.co.kr
	바인드	김시화	중년 남성 대상 패션 플랫폼 '애슬러'	athler.kr
	스타일메이트	한상희	인플루언서, 브랜드 매칭 패션 마케팅 플랫폼 '스타일메이트'	stylemate.co.kr
	스튜디오프리윌루전	권한솔	생성형 AI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studiofreewill.com
	알고케어	정지원	AI 기반 개인 맞춤 영양 관리 가전 및 솔루션 '알고케어'	algocare.me
	트레디팀	안정우	체성분 데이터 기반 애슬레틱 의류 브랜드 '보스트핏'	tredyfit.com
7기	트리플	박성민	XR 스타일테크 시뮬레이션 플랫폼	
	틴커	김태억	생성형 AI 기반 패션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젠톤'	gentone.ai.kr
	프롬서울	최현세	메타버스 아바타 제작 플랫폼 'EDEN'	eden-world.net
	누지	박찬욱	IoT 기반 기능성 체어 브랜드 '누지'	noogifurniture.com
	더오션스굿	박정훈	스웨덴 해양 아웃도어 브랜드 '세일레이싱'	sailracing.kr
	드래프트타입	김대희, 선형조	생성형 AI 기반 브랜드 콘텐츠 제작 솔루션 '드래프트타입'	drafttype.net
	르호사	김미진	주얼리 브랜드 '미스그린'	dearmissgreen.com
	마크비전코리아	이인섭	AI, 딥러닝 기반 위조상품 무단판매 모니터링 서비스	marqvision.com
	미메틱스	박형기	자연 모사 기술 기반 음압패치 피부 미용 및 의료 솔루션	mimetics.co.kr
	셸코퍼레이션	유은진	해양수산부산물 추출성분 활용 지속가능한 인도어 및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	shellcorporation.co.kr
	씨니사이드업	한원경	AI 피부진단 기반 맞춤형 반려동물 스킨케어	ssup.co.kr
	알파몬토	임재우	남성들의 매력 향상을 위한 AI 기반 스타일링 올케어 서비스	alphamonto.com
	에이든랩	강철용	AI 기반 인플루언서 및 마켓 데이터 분석 솔루션 '인코드에잇'	aidenlab.io
	엔엑스엔랩스	이재원	가상 피팅, 가상 모델 제작을 위한 이미지 생성 AI 모델 개발	nxn.ai
	엘씨벤처스	최지수	섬유 순환 솔루션 및 패션 브랜드 '러브참', '씨네드'	lcventures.co.kr
	와이콤마	선종석, 김현중	MZ 대상 패션 아울렛 플랫폼 '드립'	drrip.co.kr
	코디미	정지혜	패션 인플루언서 AI 마케팅 솔루션	codime.io
	킨도프	김선빈	패션 브랜드 '2000아카이브스'를 운영 및 브랜드 재고 소진 솔루션	kyndof.com
	펄핏	이선용	AI 기반 신발 사이즈 추천 및 쇼핑 플랫폼 '펄핏'	perfitt.io
	페칭	권용재	AI 기반 고객 맞춤형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플랫폼	fetching.co.kr

2025 스타일테크 리포트 STYLETECH REPORT

발행일	2026년 1월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발행부서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
기획 및 집필	마크앤컴퍼니/혁신의숲, 바이라인네트워크
문의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styletech@kidp.or.kr
디자인	프로젝트531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위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IDP All right reserved

2025 스타일테크 리포트 STYLETECH REPORT

Fashion, Beauty, Living
with Design+Technology

비매품 / 무료



ISBN 979-11-7486-007-1 (PDF)